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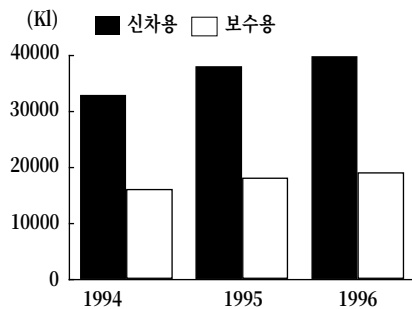
자동차용도로 수요 10%대 증가

신차용 4만톤 · 보수용 2만톤 형성 ... 시장판도 변화전망

96년 국내 자동차용도로 시장이 자동차경기의 계속된 호황을 바탕으로 자연증가 이상의 수요신장이 거듭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성장세를 이유로 일부 생산기업에서는 일찌감치 사업부 형태에서 별도의 회사 설립을 통해 시장확대에 나서는 등 향후 시장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용도로 수요추이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국내 자동차용도로 수요는 신차용 3만784Kl, 보수용 1만8000Kl 등 모두 5만5841Kl로 94년 대비 신차용 15.5%(94년 3만2770Kl), 보수용 12.2%(94년 1만6036Kl)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10%이상 신장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자동차시장이 94년 12.8%에 이어 95년에도 13.3% 성장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96년 자동차용도로 시장은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 성장을 둔화추세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알려져 95년 자동차시장 성장률 13.3%에 못미치는 7%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나 자동차의 중대형화추세에 따라 도로 수요신장률은 최소 6.0%선에서 최대 10%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신차용은 최소 3만9800톤에서 최대 4만1600톤, 보수용은 1만9000톤에서 2만여톤 정도의 수요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장전망이 다소 밝은 것으로 전해지자 자동차용도로 생산기업의 시장전략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가운데 대한페인트는 자동차도로 관련 사업부형태에서 96년 1월1일을 가해 자동차사업부만을 떼어 별도의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등 향후 삼성자동차의 신규진출과 함께 늘어날 국내 도로시장을 겨냥, 위치선점을 위한 사업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페인트의 사업전략은 삼성자동차가 자동차용도로 시장 진출을 위해 기존 생산기업을 인수하는 것과 독립회사 설립방안 중 최근 회사 설립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96년 시장변화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6년 국내 자동차 생산전망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125만9000대로 전년대비 3.4%, 기아자동차 67만8000대 6.1%, 대우자동차 46만대로 1.3%, 아시아자동차 6만대 1.7%, 쌍용자동차 6만7000대 22.0%, 대우조선 10만5000대 59.0%, 현대정공 6만6000대 69.0%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승용차가 5.8%, 상용차 9.2%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상용차의 증가율 상승에 따라 도로의 실질적인 도포면적대비 수량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2/12>